

“수신료의 가치, 감동으로 전합니다”

The Fateful Moments

운명적 순간들

KBS교향악단 제782회 정기연주회

지휘 | 요엘 레비 Yoel Levi

바이올린 | 클라라 주미 강 Clara-Jumi Kang

KBS교향악단 제782회 정기연주회
운명적 순간들 The Fateful Moments

지휘 | 요엘 레비 Yoel Levi

바이올린 | 클라라 주미 강 Clara-Jumi Kang

2022.09.28.(Wed) 20:00 롯데콘서트홀

The Fateful Moments

Program

프로코피예프 | 바이올린 협주곡 제2번 g단조, 작품63

🕒 26'

S. Prokofiev | Violin Concerto No.2 in g minor, Op.63

1악장 적당히 빠르게 (10')
Allegro moderato

2악장 조금 느리게 (9')
Andante assai

3악장 빠르게, 악센트를 충분히 사용하여 (7')
Allegro, ben marcato

인터미션 Intermission

🕒 15'

쇼스타코비치 | 교향곡 제5번 d단조, 작품47

🕒 44'

D. Shostakovich | Symphony No.5 in d minor, Op.47

1악장 보통 빠르기로 (15')
Moderato

2악장 조금 빠르게 (5')
Allegretto

3악장 느리게 (14')
Largo

4악장 빠르지만 지나치지 않게 (10')
Allegro non troppo

Yoel Levī Conductor



©Seung-Won, Jang

“음악감독으로 재직하는 동안 자신의 오케스트라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시켰다”
- <그라모폰> 지

지휘 | 요엘 레비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KBS교향악단의 제8대 음악감독 및 상임지휘자로 활약한 요엘 레비는 방대한 레퍼토리와 열정적인 무대, 유려한 곡 해석으로 한국 관객들에게 잘 알려진 세계적인 지휘자이다.

그는 뉴욕 필하모닉, 보스턴 심포니, 시카고 심포니, 베를린 필하모닉, 런던 심포니 등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악단들을 지휘했다. 뿐만 아니라 시카고 리릭 오페라를 비롯해 피렌체, 제노바, 프라하, 브뤼셀, 프랑스 등지의 세계적인 오페라단들과 함께 무대에 올랐다.

세계 유수의 음반 레이블에서 다양한 오케스트라, 협연자와 함께 40장 이상의 음반을 발매했으며, 이 중 30장의 음반은 애틀랜타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텔라크 레이블에서 발매했다. 2018년 KBS교향악단과 함께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말러 교향곡 제9번 실황 음반을 발매하기도 했다.

루마니아 태생으로 이스라엘에서 자란 요엘 레비는 텔아비브 음악원, 예루살렘 음악 아카데미, 길드홀 음악 연극 학교에서 수학했으며, 1978년 브장송 국제 젊은 지휘자 콩쿠르 우승으로 이름을 알렸다.

6년간 로린 마젤의 어시스트 겸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의 상주 지휘자로 경험을 쌓았고, 이후 12년간 애틀랜타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서 악단을 이끌었다. 브뤼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 지휘자, 일 드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의 수석 지휘자를 거쳐 이스라엘인 최초로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수석 객원 지휘자로 임명되기도 했다. KBS교향악단 제8대 음악감독을 역임하며 수차례의 유럽투어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현재 이스라엘 하이파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예술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Clara-Jumi Kang

Violinist



© Marco Borggreve

“클라라 주미 강의 음악은 매우 정교하며 균형감이 반짝인다. 아름다운 음색은 물론이고 섬세하고 솔직한 해석이 강렬하다.” - <필름 슈타트-안차이거> 지

바이올린 | 클라라 주미 강

흠잡을 데 없는 우아함과 균형을 지닌 클라라 주미 강은 서울국제음악콩쿠르(2009), 인디애나 폴리스 콩쿠르(2010), 샌다이국제음악콩쿠르(2010)에서 모두 우승했으며 세계의 주요 악단 및 지휘자들과 협연하며 국제 경력을 쌓았다. 다섯 살에 함부르크 심포니와의 협연 무대로 데뷔 후 마린스키 오케스트라,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애틀랜타 심포니 오케스트라, 뉴저지 심포니, 인디애나폴리스 관현악단, NHK 교향악단, 도쿄 메트로폴리탄 심포니 오케스트라, 베이징 NCPA 오케스트라 등 정상급 오케스트라들과 호흡을 맞춰오고 있다.

지난 2021/22시즌 라이언 밴크로프트 지휘로 BBC 웨일스 내셔널 오케스트라와 BBC 프롬스 데뷔를 성공적으로 마친 그는 다가오는 2022/23 시즌에는 버밍엄 심포니로부터 재초청되어 협연을 이어갈 예정이며, 도이치 캄퍼필하모닉, 브레멘 필하모닉, 빈 체임버 오케스트라, BBC 필하모닉, 멜버른 심포니, 도쿄 메트로폴리탄 교향악단과의 협연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BBC 웨일스 내셔널 오케스트라, 이스라엘 심포니와의 투어에도 함께한다.

2011년 데카에서 첫 번째 솔로 앨범 <모던 솔로>를 발매했고, 2016년 같은 레이블에서 피아니스트 손열음과 함께 브람스와 슈만 소나타를 담은 두 번째 음반을 발매했다. 2020년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이해 피아니스트 김선욱과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을 녹음하며 음반 발매 기념 한국 투어를 갖기도 했다.

독일에서 활동하던 한국인 음악가 가정에서 태어나 세 살에 바이올린을 시작, 네 살이 되던 이듬해 최연소 나이로 만하임 국립음대 예비학교에 입학했다. 뤼베크 음대에서 자카르 브론의 가르침을 받았고, 일곱 살의 나이로 줄리아드 음악원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해 도로시 딜레이를 사사했다. 이후 김남윤 교수 문하에서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사 및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뮌헨 국립음대에서 크리스토프 포펜을 사사했다.

프로코피예프 | 바이올린 협주곡 제2번 g단조, 작품63

S. Prokofiev | Violin Concerto No.2 in g minor, Op.63

작곡연도	1935년
초연	1935년 12월 1일
편성	플루트2, 오보에2, 클라리넷2, 바순2, 호른2, 트럼펫2, 심벌즈, 트라이앵글, 캐스터네츠, 큰북, 작은북, 현5부
연주시간	26분

1935년 12월 1일, 마드리드에서 프로코피예프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2번이 초연되었을 당시 관객들은 이 곡이 지닌 독특한 매력을 즉각 알아보았다. 초연 직후 프로코피예프는 관객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기뻐하며 “이 협주곡이 성공한 것 같다”는 내용의 편지를 쓰기도 했다.

프로코피예프는 앞서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을 통해 새로운 협주곡의 모델을 제시했고, 해당 협주곡은 이미 쇼스타코비치와 베르크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더불어 가장 성공적인 20세기 바이올린 협주곡의 반열에 올랐다. 그러나 청중의 입장에서는 오늘 연주되는 바이올린 협주곡 제2번이 제1번 협주곡에 비해 끌리는 점이 더 많다. 제1번이 차갑고 예리한 모더니즘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면 제2번은 고전적인 간결함 속에 따스한 서정성이 강조되어있기 때문이다.

평소 여러 작품에서 날카로운 화음을 통해 신랄함을 강조해왔던 프로코피예프가 무슨 연유로 바이올린 협주곡 제2번에서는 다소 부드러운 면을 보였을까? 아마도 그가 이 곡을 작곡하던 당시 오랜 망명 생활 끝에 다시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 것과 관련 있지 않을까 추측해본다.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조국을 떠나 미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프로코피예프는 언제나 조국을 잊지 못하고 심한 향수병에 시달렸다. 기회만 있으면 다시 고향에 정착하고 싶어 했던 프로코피예프는 바이올린 협주곡 제2번을 작곡하던 중 마침내 고향 땅을 밟을 수 있었다. 당시 작곡가가 남긴 기록에 따르면 “1악장의 제1주제는 파리에서 작곡되었고, 2악장의 제1주제는 보로네시에서, 오케스트레이션은 바쿠에서 완성되었다”고 전해진다. 또한 이 곡의 초연은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이루어졌으니, 이 곡에 프랑시스 세련미와 러시아 민속음악의 활력, 스페인풍의 이국적인 분위기가 모두 담겨있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1935년 12월 1일, 마드리드에서 이루어진 초연 당시 바이올린 독주는 프랑스 바이올리니스트 로베르 쇠멩(Robert Soëmens)이 맡았다. 그는 프로코피예프에게 이 협주곡의 작곡을 의뢰한 당사자이기도 했다. 그로부터 2년 후에 이루어진 미국 초연에서는 당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로 손꼽혔던 야샤 하이페츠가 독주를 맡았는데, 이후 그가 즐겨 연주하는 곡으로 거듭나며 더욱 유명해지게 되었다.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의 도입부는 다소 특이하게도 바이올린의 독주로 시작한다. 대개 협주곡 도입부에서 연주되곤 하는 오케스트라의 긴 서주가 생략된 것이다. 덕분에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하는 제1주제의 선율은 더욱 각인된다. 이후 바이올리니스트와 오케스트라의 여러 악기들이 마치 실내악을 연주하듯 섬세한 앙상블을 선보인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이 곡은 ‘소나타 같은 협주곡’이라 불리기도 한다. 바이올린 독주로 시작된 제1주제에 이어 등장하는 제2주제는 매우 서정적인데, 그 아름다운 선율은 비슷한 시기에 프로코피예프가 완성한 발레음악 <로미오와 줄리엣>의 분위기를 닮았다.

2악장 안단테 아사이는 프로코피예프가 작곡한 느린 악장 가운데 가장 뛰어난 예시로 거론되곤 한다. 어떤 이는 이 곡이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월광’과 비슷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제21번의 2악장과 비슷하다는 평도 존재한다. 서정적인 주제를 받쳐주는 오케스트라의 반주 음형이 비슷한데다 주제 선율이 편안한 분위기를 자아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프로코피예프의 스타일은 베토벤과 모차르트와는 분명히 다르다. 프로코피예프의 손끝에서 탄생한 음향은 매우 현대적이며 특히 오케스트라의 현악 주자들이 손가락으로 줄을 튕기는 ‘피치카토’ 주법 덕분에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다.

3/4박자로 시작하는 3악장 알레그로는 5/4박자, 7/4박자 등 특이하고 변화무쌍한 리듬을 통해 러시아 민속음악의 활력을 담았다. 여기에 스페인풍의 이국적인 분위기가 가미된 것도 3악장의 매력이다. 프로코피예프는 이 협주곡이 마드리드에서 초연될 것을 염두에 두고 약간의 스페인 취향을 곁들인 듯하다.

쇼스타코비치 | 교향곡 제5번 d단조, 작품47

D. Shostakovich | Symphony No.5 in d minor, Op.47

작곡연도 | 1937년

초 연 | 1937년 11월 21일 소련 레닌그라드

편 성 | 플루트2, 피콜로, 오보에2, 클라리넷2, E♭ 클라리넷, 바순2, 콘트라바순,
호른4, 트럼펫3, 트롬본3, 튜바, 팀파니, 실로폰, 글로켄슈필, 트라이앵글,
큰북, 작은북, 심벌즈, 탐탐, 하프2, 피아노/첼레스타, 현5부

연주시간 | 44분

“1936년 1월 28일, 우리는 <프라우다> 신간을 사려고 정거장으로 나갔다. 신문을 펴서 죽죽 넘기며 보는데 거기에 그 기사 ‘음악이 아니라 혼돈’이 있었다. 나는 그날을 도저히 잊을 수 없다. 아마 내 생애에서 가장 잊지 못할 날일 것이다.” - 쇼스타코비치 <증언> 중에서

쇼스타코비치는 그의 가장 유명한 <교향곡 제5번>을 작곡하기 1년 전, 소련의 당 기관지 <프라우다>에 실린 기사로 인해 하루아침에 소련 최고의 음악가에서 ‘인민의 적’으로 추락했다.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 스탈린이 쇼스타코비치의 오페라 <므첸스크의 맥베스 부인>을 관람하던 도중 객석에서 퇴장했고, 며칠 후 그 끔찍한 흑평이 실린 것이다. 공포에 휩싸인 쇼스타코비치는 그해 작곡한 <교향곡 제4번>의 발표도 미룰 수밖에 없었다. 당의 방침에 부합하지 않는 비극적인 성격의 작품을 발표했다가 또 무슨 변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당시는 스탈린의 ‘피의 숙청’이 이루어지던 시기였다. 스탈린의 전기를 집필한 볼코고노프 장군에 의하면 당시 숙청된 사람은 보통 사람들부터 원로 정치인과 군인들에 이르기까지 가릴 것이 없었고 그 수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숙청당한 사람 가운데는 쇼스타코비치의 주변 인물들도 있었다. 처남과 장모가 잡혀갔고, 연출가 메이예르홀트가 체포되었으며, 어린 시절 그를 경제적으로 후원하겠다고 자청했던 투하첵스키는 처형당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쇼스타코비치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피의 숙청이 절정에 달하던 1937년에 쇼스타코비치가 발표한 <교향곡 제5번>은 작곡가 스스로 밝혔듯 “당국의 비판에 대한 소비에트 예술가의 답변”이었다. 소비에트 혁명 20주년 기념일이던 1937년 11월 21일, 므라빈스키의 지휘로 레닌그라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 의해 이루어진 <교향곡 제5번>의 초연은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었다. 이로써 쇼스타코비치는 소비에트 당국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다시 국가적 영웅의 위치를 되찾을 수 있었다.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제5번>이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의 시대상을 진실하게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담은 긍정적인 결말로 유도하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베토벤의 교향곡처럼 ‘어둠에서 광명으로’ 향하는 구조를 띤 이 작품은 사람들의 마음을 한껏 사로잡았다. 운명적인 선율로 시작하는 1악장은 전체적으로 어두운 분위기가 지배하는 반면 2악장은 매우 신랄하고 풍자적이다. 3악장에서 다시 깊은 슬픔에 도달하지만, 마지막 4악장에서 그 모든 고뇌를 날려 버릴만한 통쾌한 승리의 결말에 이른다.

쇼스타코비치 자신도 이 교향곡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 교향곡의 주제는 인간성의 확립이다. 이 작품은 시종 서정적인 분위기로 일관되어 있으며, 나는 그 중심에 서서 한 사람의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체험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피날레에서는 이제까지 등장한 모든 악장의 비극적인 긴박함을 해결하고, 밝은 인생관과 살아가는 기쁨을 맞볼 수 있도록 유도했다.”

1악장 모데라토는 비극적인 운명을 짊어진 듯한 무거운 주제로 시작한다. 초반의 비극적인 분위기는 곧 가라앉지만, 작품의 바탕을 이루는 불안한 요소는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부분에서조차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오케스트라의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고조되고, 이내 행진곡풍의 팡파르로 발전된다. 종결부는 조용하게 마무리되는데, 이때 첼레스타의 반짝이는 소리는 앞날의 희망을 암시하는 듯하다.

2악장 알레그레토는 전통적인 스케르초에 해당한다. 첼로와 더블베이스가 강한 어조로 연주를 시작하며, 리듬의 대조와 강약의 대비가 급격하게 나타난다. 풍자적이고 익살스러운 느낌을 자아내는 전통적인 스케르초에 해당하지만, 음향적인 면에서는 20세기 교향곡다운 참신함이 드러나는 악장이다. 저음 현악기들의 기괴한 연주에 이어 귀를 찢는 듯한 E♭ 클라리넷의 연주를 듣다 보면 이것이 바로 쇼스타코비치가 그의 시대에 보내는 냉소와 비웃음이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3악장 라르고는 매우 투명하고 청아한 느낌을 주는 악장이다. 쇼스타코비치의 음악성이 섬세한 관현악법과 뛰어난 선율로서 잘 나타나며, 이따금 차이콥스키다운 정서도 엿보인다. 현악기군을 여섯 파트로 나누고 하프와 첼레스타를 편성하여 맑고 깨끗한 느낌을 준다.

4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는 힘찬 행진곡으로 시작한다. 강렬하게 돌진하는 분위기의 전반부와 달리, 후반부에는 어둡고 고통스러운 여정을 거치며 마침내 종결부에서 힘겹게 승리를 얻는 식으로 전개된다. 초반의 밝은 행진곡보다는 고난의 후반부가 더 길게 느껴지기에 마침내 찾아오는 승리의 팡파르가 더욱 부각된다.

- 최은규 (음악 칼럼니스트)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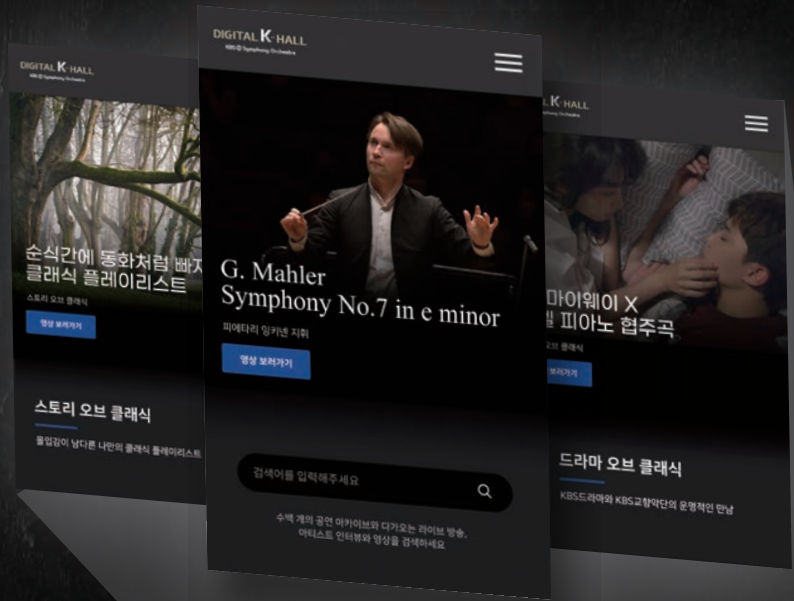
오늘 공연에 대한 연주자의 생각이 궁금하세요?

KBS교향악단 유튜브 채널에서 협연자 클라라 주미 강이 직접 전하는 쉽고 재미있는 해설 영상을 만나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KBS교향악단



언제 어디서나 클래식하게

KBS교향악단 '디지털 K-Hall' 오픈

국내 최초, 국내 유일 온라인 콘서트홀
곡목·연주자·작곡가별 검색기능을 통해 편리하고 빠른 감상 가능

콘서트

KBS교향악단의 다채로운 공연 실황 영상

플레이리스트

상황별 맞춤 음악을 제공하는 클래식 플레이리스트

클래식 스토리

연주자가 직접 들려주는 생생한 공연 해설 영상

KBSSO 스토리

KBS교향악단이 들려주는 못다한 공연 뒷이야기

디지털 K-Hall
바로가기





대한민국 교향악단의 자존심 KBS교향악단!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을 선도하는 국가대표 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은 1956년 창단되어 수준 높은 연주를 통해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 발전을 선도해 왔다. 임원식 초대 상임지휘자를 시작으로 홍연택, 원경수, 오토마 마가, 정명훈, 드미트리 키타옌코, 요엘 레비 등 세계 최정상 지휘자들이 KBS교향악단을 이끌었고, 2022년 제9대 음악감독으로 피에타리 잉키넨 지휘자가 취임하며 한국을 넘어 세계 정상의 교향악단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2012년에는 전문예술경영체제를 갖춘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며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향악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언제 어디서나 감동을 전하는 국민의 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은 교향악부터 실내악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통해 관객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수준 높은 연주를 들려주는 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 시즌 및 주제별로 관객과 소통하는 초청, 기획연주회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없는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까지 매년 100회 이상의 공연으로 10만 명이 넘는 관객에게 고품격 음악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 공연 현장에서 함께할 수 없는 관객을 위해 KBS교향악단의 연주는 KBS TV와 라디오를 통해 전국에 중계함으로써 국민의 교향악단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다.

K-클래식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가는 콘텐츠 허브 교향악단

2018년 세계적인 클래식 음반 레이블인 '도이치 그라모폰(DG)'에서 말러 <교향곡 제9번> 실황 음반을 발매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이어 체코슬로바키아 건국 100주년 기념연주회, 2019년 한국 폴란드 수교 30주년 기념 순회공연과 오스트리아 빈 무지크페어아인 황금홀 특별연주회를 연이어 개최하며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다. 코로나 시대에도 KBS의 온라인 4채널을 모두 동원한 무관중 공연으로 2만 3천여 명 실시간 관람 기록을 세우고, 클래식 음악 아카이브 '디지털 K-Hall'을 오픈하며 고품격 음악콘텐츠의 무료 제공 기틀을 마련하는 등 클래식 음악의 디지털콘텐츠 허브로서 새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 KBS교향악단은 언제나 차별화된 연주와 창의적인 기획을 통해 국민과 공감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클래식 문화브랜드로 함께 할 것이다.



사장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

한창록
피에타리 잉키넨

단원

제1바이올린

약장* 부약장** 수석* 부수석**
최병호** 반선경* 유신혜**

제2바이올린

김혜은 황미령 김희진 권혁진 최혜진 강내운 오지은 유지인 이수윤 설현선 김지현 김선우 선승미
권민지* 임정연** 유주현 김진아 이윤경 박소현 박정원 김은근 이조해 황선민 안지현 임누리

비올라

진덕* 한넬리** 박세란 최진미 김지우 유민형 임나유 석지영 박새롬 변은혜 유우정

첼로

김우진* 윤여훈** 양윤정 김현정 김소영 김희연 정세은 장현경 김신애 유소향

더블베이스

이창형* 김남균** 안수현** 양현주 유주연 장한별

플루트

김아란* 김태경** 이철호 전서영

오보에

이지민* 김종아** 윤혜원 조성호

클라리넷

박진오* 손한요** 박한

바순

박준태* 고주환** 김소연 정순민

호른

정종진** 정희찬 조세영 조현우

트럼펫

김주원** 정용균 김승현

트롬본

이윤호** 윤지연

베이스트롬본

정다운

튜바

Norito Usui

팀파니

이원석*

타악기

장세나 오지에 Matthew Ernster

하프

김서원

사무국

사무국장 신승원
미래사업추진단 단장 손대승
대외협력실 실장 김원재

공연기획팀
(공연지원파트)

팀장 손유리 차장 이한신 김지민 과장 성채은 대리 전현정
악기담당 단원 유재식 악보담당 과장 장동인

공연사업팀

팀장 조병근 대리 이미라 주임 최혜정 사원 임상아 서영재 이부윤

경영관리팀

팀장 강길호 차장 유정의 유연철 과장 박연선 주임 박태균

객원단원

제1바이올린

Viatcheslava Chestiglazov*
(키른 서부독일 방송교향악단 제1악장)

제2바이올린

구희원 변유연 이예솜

비올라

오현주

첼로

이단빈 이주혁

더블베이스

정하나

클라리넷

이소정

호른

Luke Daniel Baker* 김현준

트럼펫

안희찬*

하프

오상은

피아노

국영하

타악기

허수정

KBS교향악단 후원회 소개

KBS교향악단 후원회는 소중한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KBS교향악단이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세상과 더욱 폭넓게 나누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교향악단으로 발전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후원회원에게는 풍성한 혜택과 함께 KBS교향악단 가족의 일원으로 다채로운 행사 참여의 기회와 교류의 장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사절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1956년 창단한 역사와 전통의 KBS교향악단 새로운 후원회에 적극적인 동참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등급	후원금액	기간	등급별 혜택 (이하 등급 전체 혜택 포함)
Symphony	1억원 이상	10년	- 해외연주 동반 (2인 항공포함 교통/숙박 제공) (후원인 관련 기관/단체 전용 혜택) - 스페셜 클래스 (후원인 관련 기관)
Concerto	3천만원 이상	5년	- VVIP만찬 - 지역연주회 동반 (연 1회 2인 교통, 숙박 제공)
Cantata	1천만원 이상	2년	- VIP만찬 - KBS교향악단 명예의 전당 명단 게재
Nocturne	5백만원 이상	1년	- 공연장 VIP라운지 이용 - 후원회 밤 행사 초청 - 정기연주회 주차권 증정 - 정기연주회 백스테이지 투어
Prelude	1백만원 이상	1년	- KBS교향악단 발간물 우편발송 - 연주 Lecture 초청 - 특별연주회 초청 - 교향악단 투어 (연 1회)
Etude	1십만원 이상	1년	- 공통혜택

후원회 공통혜택

- 정기연주회 초대(Prelude 등급 이상)
- 기부금영수증 발행 (소득공제 가능)
- 정기 및 기획연주회 티켓 20% 할인(공연당 1인 2매)
- KBS교향악단 뉴스레터 온라인 서비스, 웹진 발송
- KBS교향악단 기념품 제공
- 공연장 리허설 참관 초청 (에듀드 등급은 연1회, 상위등급은 추가기회 제공)
-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북 후원 명단 게재 (에듀드 등급은 홈페이지 게재)
- * 후원회원 간 공식 행사 외 네트워크 유지되도록 행정 지원
- * 기존 후원회원은 해당 종료기간까지 기존 혜택 유지

후원회원 온라인 가입



프렌즈클럽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회원) 메일링 서비스 및 웹진 발송

KBS교향악단('kbssoforever') 또는 Facebook.com/kbssymphony 가입자 대상

후원관련문의 (재)KBS교향악단 전화 | 02-6099-7407 / 010-4932-3061

KBS교향악단 이사회

이사장	백정호 동성그룹 회장	감사	남유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상임이사	한창록 KBS교향악단 사장		
이사	윤만호 EY한영회계법인 경영자문위원회 회장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 전)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진학 유진기업(주) 사업총괄 사장 이우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구영희 KBS 시청자센터장 조현아 KBS 예능센터장 최봉현 KBS 라디오센터장		

KBS교향악단 후원회

Concerto	김영호 일산방직(주) 회장 김인호 전)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정수 (주)제이에스엔에프 회장 백정호 동성그룹 회장 / KBS교향악단 이사장
Cantata	고중제 (주)이소프팅 대표이사 권오현 전)삼성전자 회장 구자관 (주)삼구INC 회장 구자용 (주)E1 회장 김명환 (주)덕신하우징 회장 민성우 에스엠글로벌코리아(주) 대표이사 박은관 (주)시몬느 회장 박정욱 전)KBS교향악단 사장 설명수 석교실업 회장 안국약품(주) 오영환 (주)브라잇썸 대표이사 유승원 동우교역 대표 이윤세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이재승 PHA 사장 이재영 L&T렉서스 회장 이충희 (주)듀오 회장 이학노 슈퍼월드교역(주) 회장 장덕수 (재)우민재단 이사장 정진학 유진기업(주) 사업총괄 사장 최명배 (주)엑시콘 사장 허남선 (주)우성플라테크 대표이사
Nocturne	김동진 금양식품(주)대표
Prelude	김도영 변호사 김승중 전)KBS감사 김진오 변호사 박상현 (주)발렉스 대표이사 유수엽 유순신 (주)유엔파트너즈 대표 윤종효 쉐리코리아 컴퍼니(유) 대표이사 이지민 영인과학(주) 대표이사



언제, 어디서나 만나는 KBS교향악단



www.kbssymphony.org



[@kbssymphonyorchestra](https://www.instagram.com/kbssymphonyorchestra)



[youtube.com/kbssymphonyorchestra](https://www.youtube.com/kbssymphonyorchestra)KBS교향악단



[facebook.com/kbssymphony](https://www.facebook.com/kbssymphony)



플러스친구 KBS교향악단(혹은 'kbssoforever')